



세상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

이승유 콘스탄티노

100일 · 200일 · 300일 · 첫 돌 기부

100일, 200일, 300일 그리고 첫 돌을 맞아 네번째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기의 돌잡이는 실, 청진기, 연필이 아니라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픈 친구들의 손입니다. 승유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가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며 작은 나눔을 합니다. '생애첫기부'에 참여한 승유 가족

2008년 본부로 전해온 돌 반지에서 싹튼 나눔이 기적처럼 커져서 벌써 1,990여 아기가족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설레는 일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생애첫기부!' 함께 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아시아의 가난한 친구들이나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본부 사무실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기념액자를 만들어 드리고 감사장을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선물과 감사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생애 첫 기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 첫 기부 신청문의 | 02.727.2267

★ 후원안내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1005-684-077777**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454-005324-13-044**



띠앗누리 19기 캄보디아 사랑여행 체험 후기

나를 나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어느 날인가, 떼제 기도 때에 모두에게 고백한 기억이 납니다. 콜카타 사랑의 선교 수녀회에서 자원활동을 한 어느 여성의 후기에 대해, 출국 전 저는 매우 냉소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내가 그저 나로서 받아들여졌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accepted for who I was, not for what I could do.)” 저는 그녀의 아주 솔직했던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엇이 그리도 불편했을까요. 부끄럽지만 굳이 그 때를 되짚어 보자면 저는 아마도, ‘당신보다 약한 누군가를 앞에 두고 나니 당신의 조건과 잠재력이 필요 없어진 것 같더냐, 그래서 마음이 그리도 편안하더냐’ 하는 다소 웅졸한 뿌루통함을 그녀의 글을 향해 쏟아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띠앗누리 활동을 하고 난 제게도 무척 잘 들어 맞습니다. 감병 교의 박진혁 신부님, 찌라난 수녀님, 쓰레이멕 자매님,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어린이들, 마을 분들, 그리고 단원들까지도, 제가 띠앗누리 활동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능하시면서 저를 받아들이셨더라면... 아마도 저는 그저 까탈스럽고 불편한 참가자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벽돌을 옮기지도 못하며, 쉽게 피로하고, 하루의 작업을 마친 단원들의 잠시간의 휴식에 느긋하게 동참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닌 데다가, 결정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스며들 듯 섞여 들어 그들과 함께 놀아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저인 것일요. 그런데도 저는 나다리와 까타나라는 두 학생에게서 예쁜 팔찌와 머리핀, 그리고 그들이 정성껏 적은 편지를 받기도 했고, 매일 단원들에게서 수고했다는 인사를 들었으며, 처음 뵈는 마을 분들에게 서툰 발음으로 [쭈리읍쑤어-]라고 인사하면 그 분들에게 웃음과 함께 답을 들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먼저 제 손을 꼭 움켜 쥐어 주기도 했고, 떼제 기도 때에는 함께 둘러앉은 분들의 진심 어린 기도들을 함께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후에도, 잘 다녀왔냐고 걱정해 주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뜻 깊은 일을 하고 왔다고, 수고했다고 연락해 주시는 대모님께 다시금 사랑을 받습니다. 어쩌면 제가 콜카타 어느 단원의 후기를 곧은 마음으로 읽지 못했던 까닭은, 그녀가 보고 느낀 것과 같은 사랑을 연습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받은 사랑을 오래 돌려 드릴 수 있는 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14박 15일간, 띠앗누리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띠앗누리 19기 단원 정승아 테레시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가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진행합니다.

미사는 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12개 위원회 주관으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명동성당**에서 봉헌되며,
지난 3월 26일 ‘노후 원전 지역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탈핵 기원’ 미사가 처음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노동자를 위한 미사가 진행되오니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 ★ **일시** 4월 30일(목), 19시
- ★ **장소** 명동대성당
- ★ **주제** 노동자를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야고보 2.1 참조)
- ★ **주최** 서울대교구
- ★ **주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는 꽃이 아닌 영원히 재생되는 씨앗을 선물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후원금이 벽돌, 모래, 시멘트, 물이 되어 부룬디에 초등학교 교실 6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없어 비록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고 있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의 모습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실이 완공되면 2015년 12월, 2차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사용할 화장실, 서재, 교무실을 짓겠습니다. 부룬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노는 그 날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4.12.21~2015.02.28 2달 2주간 진행된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에 591분이 참여해주셔서 136,942,187원이 모였습니다. 이 소중한 후원금은 부룬디 아이들에게 교실 6개를 짓는데 잘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룬디를 위해 함께한 단체이야기

- 01 첫 행사 이후, 제2회 서울대교구 15지구 영등포, 금천 청년들이 성가 축제 '메아리' 티켓 판매 수익금 기부

★ 부룬디 학교 짓기를 위한 첫 행사 | 수익금 전액 기부
★ 제 2회 행사 수익금 | 후원금 1,450,000원

- 02 서울대교구 11지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공동체 미사 봉헌금 기부

★ 후원금 1,201,300원 / 일시: 2014년 대림시기

- 03 영양성모 유치원 졸업반 (온유반, 원아 9명) 아동들의 수학 여행 경비 잔액 기부

★ 후원금 184,200원 / 일시: 2015년 1월 30일

- 04 솔샘 유치원 160명의 원아들의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 후원금 1,627,000원 / 일시: 2015년 2월 12일

- 05 인천 박문초등학교 '박문 오케스트라' 2014년 정기연주회 수익금 기부

★ 후원금 8,192,640원 / 일시: 2014년 12월 12일

- 06 명동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기쁨잔치 수익금 기부

★ 후원금 150,000원 / 일시: 2014년 11월 23일

- 07 정릉4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의 전 학년 학생들이 알뜰시장을 개최해 얻은 수익금 기부

★ 후원금 83,170원

- 08 하계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림기간 동안 저금통에 모은 동전 기부

★ 후원금 257,630원

- 09 묵동성당 청년연합회 2014년 성탄절 미사 후 우동, 오뎅, 막걸리, 파전을 마련해 신자들에게 판매한 수익금 기부

★ 후원금 1,000,000원

- 10 계성여자고등학교 2학년7반 학생들의 지각비 기부

★ 후원금 60,000원



생애첫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강진우 어린이의 생애첫기부

생애첫기부 김다솜 연희 마리아 2014.04.14생 父 김영부 母 송해련 김병현 2000.12.05생 父 김성규 母 김민희 김지성 릴리안 2013.12.05생 父 김중원 母 나보라 김지연 로즈마리 2013.12.05생 父 김중원 母 나보라 김지은 라파엘라 2014.03.03생 父 김현승 母 김도연 김형준 2010.11.10생 父 김재현 母 윤안나 문세연 정혜 엘리사벳 2013.12.07생 父 문홍권 母 고민선 박도는 마르첼리노 2014.03.18생 父 박정명 母 김진화 박민성 대건 안드레아 2013.03.28생 父 박상득 母 최형주 박선정 2014.04.02생 父 박경근 母 김다정 박소은 2014.03.26생 父 박병선 母 구지현 박재원 2014.02.12생 父 박락용 母 지소영 백지훈 명서 베드로 2014.02.19생 父 백수현 母 이서은 서하를 프란치스코 2013.03.14생 父 서지훈 母 김수연 성지유 2014.03.26생 父 성안수 母 정은경 손채은 비아 2014.03.08생 父 손혁준 母 김지연 송맑음(태명) 父 송준한 母 이소연 엄지우 2014.04.01생 父 엄성민 母 함정연 우이준 2014.03.21생 父 우진영 母 강성민 유이현 2014.04.06생 父 유재민 母 장별 이기호 2014.03.24생 父 이상욱 母 김미경 이유준 다니엘 2014.03.12생 父 이한희 母 채윤정 이재훈 프란치스코 2014.04.19생 父 이장일 母 김진애 임서우 2014.04.07생 父 임충민 母 고혜영 임세현 2014.02.25생 父 임재정 母 한승연 임소을 2014.03.11생 父 임한택 母 홍영미 장하경 2014.03.20생 父 정은훈 母 최지은 정현규 2013.04.03생 父 정재업 母 손봄이 정현찬 2013.04.03생 父 정재업 母 손봄이 조인우 2014.04.08생 父 조성열 母 신선영 진우현 다니엘 2014.03.13생 父 진덕윤 母 배우리 진현민 2015.02.13생 父 진효정 母 이소라 최희영(태명) 父 최경환 母 서정은 최성은 2014.01.13생 父 최용석 母 이수현 최재원 2014.04.18생 父 최상우 母 박은경 최준우 요셉 2014.03.11생 父 최지용 母 황정원 하다혜 2014.04.30생 父 하도호 母 김효숙 홍지원 2014.4.2생 父 홍성철 母 변정연

두번째 기부 김대용 치릴로 2004.02.15생 父 김기태 母 최서운 김동욱 2013.03.02생 父 김봉재 母 장은경 김리원 2012.02.15생 父 김영진 母 이은경 김은우 다니엘라 2013.03.14생 父 김준우 母 소유진 김주원 프란치스코 2013.03.30생 父 김동은 母 오지정 박유진 요셉 2014.03.06생 父 박재홍 母 임조희 송하연 엘리사벳 2014.07.12생 父 송민진 母 박라영 이준영 요셉 2004.03.18생 父 이종화 母 김경희 정동하 다미아노 2013.02.26생 父 정동훈 母 윤수진 조민재 마카렐 2013.01.14생 父 조준일 母 진민경 조윤재 알로이시오 2014.03.12생 父 조현진 母 조호진

세번째 기부 문규림 크리스티나 2012.02.09생 父 문한기 母 박미선 박소을 요안나 2012.03.26생 父 박광진 母 박봉정 박시우 요셉 2012.04.10생 父 박정호 母 임미혜 박지을 2012.03.08생 父 박형석 母 임경화 조서운 그라시아 2012.03.20생 父 조재범 母 도해리

네번째 기부 이승우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정성하 요셉 2011.03.09생 父 정용운 母 김애리

생일 기부 고재인 시몬 1977.03.28생 이찬희 바오로 1981.02.04생

첫 월급 기부 박숙정 다니엘라 1989.02.27생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알렉스 알레산드라&김선아 실비아 결혼기념일 2013.02.02

멋진 커플 기부 황일희 안드레아 & 김혜인 루치아 2001년 기념

★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7

★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는행 1005-684-077777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는행 454-005324-13-04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랑실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안내
교회의 사명이자 신자들의 의무인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일감을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02-727-224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www.escvc.or.kr (여기서 봉사하세요)

[노동사목위원회]

2015 노동사목위원회 노동절기념 / 신앙 특! 일과 신앙의 괴리

· 일시 | 2015년 5월 10일(일) 오후 2시
(4시 파견미사 : 주례 유경춘 주교)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 02-924-272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나눔기업 신청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143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현대엘스
145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골목집
146호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남공인중개사
147호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다진도에 은하꽃방
148호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농협 한삼인 월곡점
149호점	경기 원미구 삼곡동 김박천국 부천점
150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영산홍가
151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박경숙 맛집
152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포항과매기
153호점	서울 송파구 구여동 다이소 거여점
154호점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이레미용실
155호점	부산 기장읍 청강리 후호텔
156호점	서울 광진구 군자동 웰리스패션마트
157호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참좋은부동산
158호점	인천시 남구 단컨도너츠 문학아구장점
159호점	서울 강동구 둔촌2동 정다운약국
160호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울약국
161호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고기왕국
162호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법무사 김병현사무소
163호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정치과
164호점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로트종합상사
165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세진약국
166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황가네함흥냉면
167호점	서울 송파구 석촌동 웰메이드 송파직영점
168호점	서울 마포구 서교동 민들레
169호점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파크로스터
170호점	광주 동구 중앙로 트라이 광주중앙점
171호점	서울 양천구 산월3동 고포스
172호점	인천 용진동 영흥남로 삼봉 푸줏간 정육점식당
173호점	경남 하동군 악양면 그림동
174호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주)테르스포트
175호점	서울 은평구 녹번동 뉴하이퍼
176호점	제주 서귀포시 신양로 시베리아굴&3시별장
177호점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꿈꾸는 갈비탕

※ 기준: 2014. 5 ~ 2015. 3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이 되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현재 약 16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 727 2263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문의 | 1599 3042(생영살이)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oboscorea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살로 가족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가족을 위한 개인상담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을 통해 외상을 돌본 후, 추후 자살유가족 자조모임(날짜미정)을 통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상담문의 | 02 318 3079 (월~금, 10시~17시)

① 대상: 자살로 가족 및 소중한 이를 잃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② 상담비 무료/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 (주1회 50분)

※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www.3079.or.kr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52,027 명 2015.3.27 현재

★ 자동이체신청 | 02 774 3488

★ 지로 | 7522277

★ 후원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는행 | 454-005324-13-001

신한은행 | 140-001-982286

국민은행 | 083-01-0309-453

★ 인터넷참여 | www.obos.or.kr

★ ARS | 060 700 1117

회환은행 | 061-22-03709-4

하나은행 | 850-910006-09104

농협 | 386-01-015833